

### 담양 지난해 지방재정 결산 공시

#### 군 홈페이지 게시

담양군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 현황인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공시는 군의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 절차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결산규모, 재정여건,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등 9개 분야 5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시결과를 보면 지난해 담양군의 세입예산 6,017억 원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66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2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출규모는 4,698억 원으로 2018

년 대비 6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847억 원(19.4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분야 728억 원(16.17%), 국토·지역개발분야 701억 원(16.08%) 순으로 세출규모가 늘면서 규모가 1년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양군은 현재 지방채무가 0원으로 유사 자치단체평균액 19억 원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담양 전통시장 재건축,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등 12건의 특수 공시 대상 사업을 선정해 함께 공개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 화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화순군은 최근 정부가 화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유실·전파된 주택의 지적 측량은 측량 수수료 100%, 그 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50% 감면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 측량 완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기를 바란다"며 "지적 측량 수행자와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 장흥 민방위 교육 비대면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스마트교육 대체

장흥군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된 모든 민방위 교육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의 스마트교육으로 대체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및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지진,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스마트 민방위 교육 사이트(www.cdc.kr)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동안의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20분항 중 14분항의 교육평가를 통과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 함평 '전국 최초' 모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

### KT와 업무협약... 관내 357곳에 기가인터넷 등 무료 설치

#### TV 플랫폼도 시범 운영... 고령층 여가활동 확대·정보격차 해소

함평군은 전국 최초로 지역 경로당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함평군은 2일 군청 군수실에서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경로당 375개소 전체에 대해 기가인터넷 등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령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여가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KT는 함평 지역 전체 경로당에 기가인터넷, IPTV 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망을 무료로 구축한다.

군은 회선이용료 등 3년간의 요금을 지원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시설 전반을 관리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함께 IPTV를 활용한 정책알리미 TV 플랫폼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무인·비대면 시대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0월부터 재난상황, 민생시책, 농정현안 등을 안내하는

'함평정책 TV서비스'를 올레TV 전용채널(KT, 4803)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지역관광자원 홍보와 군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까지 다방면에서 수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함평형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부일 기자

## 영광 불갑사지 관광 'e모빌리티' 타고 보고 즐긴다

### 불갑사지구 왕복 7.3km 구간 시험주행 마쳐

영광을 대표하는 불갑사지구 관광을 퍼스널 e-모빌리티 개인용 전기동력 운송수단을 타고 보고 즐기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사변공원 구간

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퍼스널 e모빌리티(PM)를 직접 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PM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e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영광군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주행노선 개발과 주행 안전성 검토를 위해 최근 불갑사지구 관광지에서 불갑사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7.3km 구간에서 PM 시험주행을 실시했다.

PM 주행도로는 불갑천 상류 하천 제방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따라 만들어진다.

이번 시험주행 결과에 따라 제방도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도로 주행 방향, 도로 횡단구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영광군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철 구간에 대해선 설계시 면밀히 검토하고 앞서 수립한 'e-모빌리티 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PM 운영방식은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방안을 놓고 효율성을 따져 결정할 예정이다. 위탁운영 방식으로 결론 날 경우 기반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서종민 기자

**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출범 후 9일 첫 주민총회**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회장 최규주)가 올해 첫 주민총회를 연다.

나주시 빛가람동은 오는 9일 내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제1회 빛가람동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출범 1년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주민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온택트(ontact)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의제사업 우선순위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자치회는 앞서 내년도 의제사업 우선순위 사전투표를 지난 달 25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직장·사업장 소재지가 빛가람동인 만15세 이상 주민 누구나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포털사이트 '네이버 폼' 전자투표 링크(<http://naver.me/1kbi2ss>), QR코드(사진첨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내년도 의제사업 중 먼저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은 ▲빛가람전망대 새해맞이 행사 ▲아나바다 벼룩시장(플리마켓) 운영 ▲빛가람동 고보조명 설치 ▲마한 영산강 고대역사 박물관 기 ▲행정복지센터 로비 사랑의 무인카페 ▲빛가람동 마스크코트(캐릭터) ▲호수공원 국악버스킹 운영 등 7개 사업이다.

/나주=조성준 기자

## 장성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호응'

### 올해 44개 농가 선정... 전문업체 통해 효율적 추진

장성군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 88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의회 회의를 거쳐 44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수확기에 작물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정한 가격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장성군은 영세 농업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하우스는 600평(1983㎡)에서 300평(991㎡)으로, 과수농가는 1500평(4958㎡)에서 900평(2975㎡)으로 지원 문턱을 낮

췌다.

또한 작년부터 저온저장고 규모 기준 30평(99㎡) 지원을 없애고 5평(16㎡) 혼합(냉동, 냉장) 항목을 신설해 참여 농가를 늘렸다.

한편,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도 내실을 기했다.

올해 군은 서면평가 등 공정한 공모과정을 거쳐 8개 전문업체를 선정했다. 부실공사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장성=백종욱 기자

